

'25.3월 전산업생산 2개월 연속 증가

- '25.3월 소매판매, 설비투자, 건설기성은 감소 전환 -
- '25.1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 중심으로 2분기 연속 증가 -
- 對美 협의, 필수추경 등을 통한 통상 리스크 대응과 건설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 -

'25.3월 산업활동은 서비스업 생산(전기비 $\Delta 0.3\%$ / 전년동기비 0.7%)이 감소했으나, 광공업(2.9% / 5.3%), 공공행정(4.5% / 3.8%)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(0.9% / 1.3%)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.

- * 전산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0.4/ 0.6 ('25.1Q)0.2/ $\Delta 0.5$ <(1) $\Delta 1.6$ / $\Delta 3.8$ (2) 1.0/ 1.2 (3) 0.9/1.3>
- 광공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1.5/ 3.5 ('25.1Q)0.6/ 2.4 <(1) $\Delta 2.9$ / $\Delta 5.0$ (2) 1.4/ 7.1 (3) 2.9/5.3>
- 서비스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0.7/ 0.6 ('25.1Q)0.3/ 0.4 <(1) $\Delta 0.9$ / $\Delta 0.9$ (2) 0.9/ 1.2 (3) $\Delta 0.3$ /0.7>
- 공공행정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$\Delta 2.0$ / $\Delta 2.1$ ('25.1Q)2.4/ 0.9 <(1) 1.8/ $\Delta 1.6$ (2) $\Delta 0.5$ / $\Delta 0.3$ (3) 4.5/3.8>

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(전기비 $\Delta 0.3\%$ / 전년동기비 1.5%)와 설비투자($\Delta 0.9\%$ / 14.1%)가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, 전년동기비로는 증가했다. 건설기성($\Delta 2.7\%$ / $\Delta 14.7\%$)은 과거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, 교량 사고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감소했다.

- * 소매판매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$\Delta 0.4$ / $\Delta 2.0$ ('25.1Q) 0.7/ 0.0 <(1) $\Delta 0.6$ / 0.2 (2) 1.9/ $\Delta 1.8$ (3) $\Delta 0.3$ / 1.5>
- 설비투자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$\Delta 1.8$ / 5.3 ('25.1Q) $\Delta 1.9$ / 5.5 <(1) $\Delta 17.2$ / $\Delta 6.7$ (2)21.3/ 8.0(3) $\Delta 0.9$ / 14.1>
- 건설기성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4.4Q) $\Delta 5.1$ / $\Delta 9.7$ ('25.1Q) $\Delta 6.1$ / $\Delta 20.7$ <(1) $\Delta 4.5$ / $\Delta 27.4$ (2) 2.4/ $\Delta 20.2$ (3) $\Delta 2.7$ / $\Delta 14.7$ >

'25.1분기 전산업생산(전기비 0.2% / 전년동기비 $\Delta 0.5\%$)은 광공업(0.6% / 2.4%) · 서비스업(0.3% / 0.4%) 등에서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. 다만,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약화, 일시적 요인(산불·사고, 폭염·한파) 등으로 증가폭은 전분기(0.4%) 대비 축소되었다.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($\Delta 1.9\%$ / 5.5%)와 건설기성($\Delta 6.1\%$ / $\Delta 20.7\%$)은 감소했으나, 소매판매(0.7% / 0.0%)가 2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.

정부는 對美 협의,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관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 아울러, 필수추경 국회 통과 시 신속히 추진하고, 건설투자 부진요인을 점검해 근본적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2730)
			사무관	최봉석 (044-215-2731)
			사무관	신승헌 (044-215-2732)
			사무관	원종혁 (044-215-273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1. 주요 내용

1 [생산] 3월 광공업(2.9%)·공공행정(4.5%) 증가, 서비스업(△0.3%) 감소

① (광공업) AI 서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역대 최대 수준의 반도체 생산, 의약품 수출 확대 등으로 증가폭 확대(1.4→2.9%)

▶ <반도체> 생산 증가, 출하 증가, 재고 감소

* 생산(전월비, %): ('24.7) △6.9 (8)3.9 (9)△0.7 (10) 4.7 (11)3.5 (12) 3.5 ('25.1) △1.1 (2) 1.4 (3) **13.3**
 출하(전월비, %): ('24.7)△23.0 (8)4.9 (9) 12.1 (10)△13.5 (11)3.3 (12) 37.5 ('25.1)△25.9 (2)△1.1 (3) **19.8**
 재고(전월비, %): ('24.7) 0.4 (8)1.2 (9)△9.4 (10) 16.1 (11)0.8 (12)△18.8 ('25.1) 6.6 (2)△1.1 (3)**△9.9**

☞ '25.3월 반도체 지수(201.0, 계절조정)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(직전 최고치 '24.12월 176.9)

▪ 재고/출하비율은 재고 감소(△2.4%)·출하 증가(0.9%)로 하락(△3.5%p)

* 재고/출하비율(%): ('24.9)106.6 (10)111.0 (11)113.6 (12)103.5 ('25.1)110.5 (2)107.4 (3)103.9

② (서비스) 전월 전기차보조금 조기지급, 신제품 출시로 큰폭 증가했던 기저효과, 주식거래 축소 등으로 도소매·금융보험 중심 감소(0.9→△0.3%)

③ (공공행정) 재정 신속집행 등으로 22개월만에 최대폭 증가(△0.5→4.5%)

		'23	'24	1/4	2/4	3/4	4/4	'25.1/4	1월	2월	3월	(업종별, 전월비, %)
총산업	<전기비, %>	-	-	0.4	0.0	△0.4	0.4	0.2	△1.6	1.0	0.9	(광공업)2.9 (건설업)△2.7 (서비스업)△0.3 (공공행정)4.5
	<전년동기비, %>	1.1	1.5	2.9	2.2	0.5	0.6	△0.5	△3.8	1.2	1.3	
광공업	<전기비, %>	-	-	△0.8	1.8	△0.5	1.5	0.6	△2.9	1.4	2.9	(반도체)13.3 (의약품)11.8 (기계장비)△3.1 (석유정제)△9.3
	<전년동기비, %>	△2.6	4.1	5.3	5.2	2.4	3.5	2.4	△5.0	7.1	5.3	
서비스업	<전기비, %>	-	-	0.3	0.0	△0.3	0.7	0.3	△0.9	0.9	△0.3	(도소매)△3.5 (금융보험)△2.1 (정보·통신)△2.1 (보건·복지) 3.4
	<전년동기비, %>	3.4	1.1	2.1	1.6	0.2	0.6	0.4	△0.9	1.2	0.7	
민간행정	<전기비, %>	-	-	△0.5	△0.9	1.7	△2.0	2.4	1.8	△0.5	4.5	
	<전년동기비, %>	△6.9	△0.8	△1.7	△0.5	1.7	△2.1	0.9	△1.6	△0.3	3.8	

2 [지출] 3월 소매판매(△0.3%) · 설비투자(△0.9%) · 건설기성(△2.7%) 감소

① **(소매 판매)** 준내구재^{의류}(2.7%), 비내구재^{음식료품}(2.8%) 판매가 증가했으나, 내구재^{차·통신기기}(△8.6%)에서 줄어 감소(1.9→△0.3%)

▶ '25.2 → 3월(전월비, %): (준내구재)△0.9→2.7 (비내구재)△2.3→2.8 (내구재)13.5→△8.6
 [준내구재^{기여도 0.5}]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의복·신발·가방 등 판매 증가
 [비내구재^{기여도 1.5}] 대형마트 할인행사, 독감 유행으로 음식료품 및 의약품 판매 증가
 [내구재^{기여도 △2.4}] 전월 승용차(전기차), 휴대폰(Galaxy S25) 등 판매 기저효과로 감소

② **(설비투자)** 선박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운송장비 증가에도 일반산업용 등 기계류 줄며 소폭 감소(21.3→△0.9%)

③ **(건설기성)** 건축·토목이 모두 줄어 전월비 감소(2.4→△2.7%)

		'23	'24								(업종별 전월비 %)	
				1/4	2/4	3/4	4/4	'25.1/4	1월	2월		3월
소매 판매	<전기비, %>	-	-	△2.2	△0.3	0.7	△0.4	0.7	△0.6	1.9	△0.3	(내구재)△8.6, (준내구재)2.7, (비내구재)2.8
	<전년동기비, %>	△1.3	△2.1	△1.6	△3.1	△1.5	△2.0	0.0	0.2	△1.8	1.5	
설비 투자	<전기비, %>	-	-	△1.5	△1.4	10.2	△1.8	△1.9	△17.2	21.3	△0.9	(기계류)△2.6, (운송장비)3.4
	<전년동기비, %>	△4.8	2.9	△1.4	△3.3	11.5	5.3	5.5	△6.7	8.0	14.1	
건설 기성	<전기비, %>	-	-	7.7	△8.2	△3.8	△5.1	△6.1	△4.5	2.4	△2.7	(건축)△1.5, (토목)△6.0
	<전년동기비, %>	7.8	△4.7	4.0	△3.1	△9.1	△9.7	△20.7	△27.4	△20.2	△14.7	

3 [경기 순환변동치] 3월 동행지수(+0.3p) · 선행지수(+0.2p) 모두 상승

① **(동행)** 건설기성액 감소에도 취업자수, 수입액 증가하며 상승

* 동행지수 순환변동차: ('24.9)99.0 (10)99.3 (11)98.9 (12)98.8 ('25.1)98.4 (2)98.5 (3)98.8 <+0.3p>

② **(선행)** 건설수주액 감소에도 장단기금리차, 주가 등 오르며 상승

* 선행지수 순환변동차: ('24.9)100.8 (10)100.8 (11)100.8 (12)100.7 ('25.1)100.3 (2)100.4 (3)100.6 <+0.2p>

2. 평가 및 대응

□ 3월 산업활동은 생산이 광공업·공공행정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, 소비·투자 등 내수 부문은 감소

○ 서비스생산·소매판매·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, 2월 큰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(전년비로는 모두 증가)

○ 건설기성은 과거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, 교량 붕괴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감소(전년비로도 감소)

□ 1분기 전체로는 경제심리 약화, 일시적 요인(산불·사고, 폭설·한파),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산업 생산 증가폭 축소(0.4→0.2%)

* 생산 증가율(24.4Q→25.1Q, 전비 %): (광공업)1.5→0.6 (서비스업)0.7→0.3 (건설업)△5.1→△6.0 (공공)△20→24

※ 국내정치 불확실성 완화, 일시적 요인 해소, 추경 등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, 美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 매우 큰 상황

□ 통상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

①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對美 협상 및 국내 피해기업 지원 등 총력 대응하고, 필수추경도 신속히 추진

② 내수 부진요인별 맞춤형 대응 노력 지속·강화

- 대외충격의 내수 파급 최소화 위해 경제심리 회복 촉진, 취약부문 지원

* (소비) 신차 개소세 감면 전기차보조금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집중지원 상생페이백(1.4조원 추경) 등 소비 인센티브 확대 (투자) 반도체 투자세액공제(+5%p)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(~25년) 등

- 건설은 민간·공공, 건축·토목 전분야에 걸쳐 부진요인 점검해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 지체요인별 대응*도 지속

* (PF)보증 확대(35→40조원), (지방 미분양)NH 직접 매입(3천호), (공사비)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등